일제강점기 만주망명가사의 정서 표출 양상*

신 송**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만주망명가사의 창작 배경
Ⅲ. 만주망명가사의 표출 정서
Ⅳ. 나오며

1. 들어가며

가사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시가 장르이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들의 강호한정·충신효제·우국애민 그리고 규방 부녀자들의 신세한탄·자녀교육·시집살이가 주된 내용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민들의 신분제 폐지에 대한 호소, 동학과 기독교들의 포교 및 시인들의 항일 등 변혁기의 시대상이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행체험은 물론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 참여 수단으로 애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가사는 복잡다단한 사회를 거치면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일제강점기 만주망명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중 한 장을 보충 및 요약·정리하였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 작품의 소재 및 정서 표출 방식 등이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가사의 담당층과 향유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랜 시간 창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창작의 용이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사는 외적 형태상 3·4조나 4·4조를 위주로 하는, 4음 4보 1행의 기본 율격을 갖춘, 행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연속체로 된 시가문학[1]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학성은 가사를 "작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장르"[2]라고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지니며,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가사의 이러한 특성은 1910년 이후, 한일병합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외 망명자들에 의해 형성된 망명지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망명지문학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자 국내 이외의 새로운 항일 운동 투쟁지가 필요해지면서,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하게 되는 과정에서 산출되었다. 그리고 망명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가능하지 않은 투쟁을 국외에 나가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울분을 토로하거나 독립 투쟁을 호소하는 글[3]을 작성하여 망명지문학을 형성하였다. 주요 망명지는 미국·소련·상해·만주 등지였다. 물론 이 외의 해외로 망명을 떠난 경우도 있었지만[4] 그 중

1) 김신중, 「가사의 형태적 변화와 현대적 수용」,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111쪽.
2) 김학성, 「가사 양식의 전통 유형과 계승방향」,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56쪽.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제4판, 지식산업사, 2013, 458쪽 참조.
4) 안영길, 「20세기초 만주 문학의 성격」, 『우리어문연구』 제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153쪽.

에서도 망명지의 중심지는 바로 만주였다.

만주 망명은 일제강점기의 초창기 망명에 해당되며, 주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포함한 집단 망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옛 터전인 만주로 망명지를 결정하고 유하현과 통화현 등 서간도로 건너갔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전 조선인을 규합해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독립 투쟁에 나설 인재를 교육하고 초창기 독립 투쟁의 전선을 이끌었다.[5] 이러한 가운데 만주 망명을 소재로 하는 가사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학계에서 확인한 만주망명가사는 총 7편으로, 김대락의 〈憤痛歌〉(1913), 이호성의 〈위모ᄉᆞ〉(1912), 김우락의 〈조손별서라〉(1913)와 〈간운ᄉᆞ〉(1914), 평해황씨가의 며느리가 지은 〈원별가라〉(1916), 윤희순의 〈신식ᄐᆞ령〉(1923), 김우모의 〈눈물 뿌린 이별가〉(1940)[6]가 존재한다. 이상의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작가들이 일제강점기에 만주 망명을 통해 느꼈던 복잡한 심사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들이 향유했던 가사문학이 가장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만주망명가사의 연구[7]는 개별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

5)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8쪽 참조.

6) 앞으로 작품의 제목을 명시할 경우에는 현대어로 고친 제목을 대표 작품명으로 사용한다.

7)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집, 국어국문학회, 2009;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ᄉᆞ〉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제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고순희,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 〈위모사〉, 〈신식ᄐᆞ령〉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여 작가 의식을 고찰하거나, 6편의 가사를 여성이 창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식 구조를 살펴보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만주망명인들이 지은 7편의 가사를 통합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더불어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들의 가사 작품을 분석하는 경향도 보여주었으며, 대부분의 작가들이 안동 지역 사람인 것에 주목하여 만주 망명 관련 가사문학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안하려는 논의가 시도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만주망명가사를 규명함에 있어서 작가를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분석했던 기존 논의의 시각을 반성하고, 7편의 가사 작품을 '만주망명가사'라는 주제로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만주망명인들이 가사를 창작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하고, 작품에 나타난 정서 표출 양상을 규명하며, 만주망명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가사문학으로서 만주망명가사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만주망명가사의 창작 배경

한국문학사에서 가사문학은 일제강점기 즈음에 이르러 그 시적 생명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미학적 특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4집, 우리어문학회, 2012;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5.

력을 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가사문학이 이 시기에도 양산되기는 했지만 그 작품세계는 천편일률적이어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가사 작품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시기의 가사문학은 그 생명력을 유지함은 물론 시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8]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제 강점이라는 현실에 대응하여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수용한 작품들도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만주망명가사가 있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만주망명가사의 작가들이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뼈아픈 이별을 감내하면서까지 만주로 망명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주망명가사가 창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항일투쟁가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 투쟁을 기획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만주로 망명할 때, 가족 단위로 망명하면서 여성들을 동반해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망명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정의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 운동이라는 역사적·사회적 대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사는 작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과 감정을 4음보 연속체의 형식에 맞추어 얼마든지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경과 망명지의 생활을 절절하게 토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가사 창작이 다른 장르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향유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가사문학이 창작될 수 있었던 원인을 규명하기로 한다.

---

8)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84~185쪽 참조.

먼저, 김대락[9]이 〈분통가〉를 쓸 때 부인과 여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창작 의도를 밝힐 정도로 당시 양반가 여성의 가사 창작과 향유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만주로 망명한 여성들이 고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대락의 『백하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국문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그것으로 비통한 심사를 풀고, 부녀자들에게도 내가 전후로 겪은 곤란을 알도록 하였다. 대략 역사가의 필법을 본떴는데, 이 또한 나의 본령에 드는 것이다. 뒤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를 보고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10]
>
> –김대락, 『백하일기』 1912년 9월 27일

위의 기록을 토대로 김대락이 〈분통가〉를 짓게 된 창작 동기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자신의 결정 하나로 부인과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므로 망명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11]으로 보인다.

---

9) 김대락은 1845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서 김진린(1825~1895)과 어머니 함양 박씨(1824~1877)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대락의 자는 중언(中彦), 호는 분서(賁西)라 하였는데, 후일 만주에 들어가 백두산 언저리에 산다는 뜻에서 백하(白下)라는 별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김대락은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一家를 이끌고 만주 망명길에 나섰다. 4남 3녀 가운데 장자였던 그는 김효락(1849~1904), 김소락(1851~1929), 김우락(1854~1933), 김정락(1857~1881), 김순락(1860~1937), 김락(1862~1929) 등 남동생과 여동생 각각 셋을 두었다. 김효락은 만식·제식 두 형제를, 소락은 조식·홍식·정식 3형제를 두었다. 이 조카들이 김대락의 망명을 도왔고 망명 뒤에도 그를 따라 서간도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화식·문식·영식 등의 종질(당질)들도 많았는데 이들도 만주로 망명하여 김대락을 도왔다.

1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壬子錄〉, 경인문화사, 2011, 287쪽.

김대락은 부인과 며느리, 심지어 만삭의 손녀까지 동반하여 망명길에 올랐다. 만주까지의 도착 과정은 그야말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야 하는 여행이었고, 그 후 만주에서의 생활도 이전의 생활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생활이었다. 자신의 결정 하나로 가족 공동체[12]인 부인과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뜻과 이유를 알려야만 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김대락은 한문으로 글을 쓰던 대표적인 유생이었는데, 만주로 함께 망명을 온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사문학으로 창작하였다. 그리하여 부인과 여자들도 만주로 망명하는 당시의 과정이나 만주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고국에서 관습적으로 향유했던 문학 장르인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대락은『백하일기』에 〈분통가〉를 기록한 후, 〈분통가후지(憤痛歌後識)〉를 기록해두었다. 이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1)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와 디아스포라」, 『한국시가연구』 제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186쪽.

12) 만주망명지에서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 함께였다. 서간도 이주는 특히 한일병합 시에 많았는데, 반드시 처자를 대동하고 갔다고 한다.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앞의 글, 52쪽 인용) 이처럼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망명할 수 있었던 당시의 의식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는 한 남편, 한 아내에게서 시작되어 가족이 되고,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여러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가족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옛날에 성왕이 법을 만드실 때는 '근본을 힘쓰는' 것을 요점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에 뜻을 쏟으셨으니, 종묘의 예는 배행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오복의 차례는 친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 도타움과 화목함의 우의를 강구하고 종법을 세워 권선징악의 정사를 행하니, 일이 있으면 합심하여 해결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협력하여 막아내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서(序)〉 경인문화사, 2008, 564쪽)

노래라는 것은 시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군신이 서로 화합하던 밝은 시대에는 갱재가(賡載歌)나 남훈(南熏)의 시를 노래하고 유리(流離)하고 어지러운 세상에는 서리(黍離)나 채미(採薇)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은 만난 때가 그래서 사람의 성정을 감발한 나머지로, 이 또한 내용은 같으나 형식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분통가를 짓는 까닭이다. 그래서 교묘(郊廟)에 모이는 시는 온화하며 장엄하고, 정부(征婦)의 한스러워하는 노래는 슬퍼 마음을 상하게 하니, 이것은 다 쇠망한 세상의 뜻이므로, 갱재가나 남훈 시의 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내가 사변 이후부터 사방에서 호구를 하며 혹 시로 분노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서술하고 혹은 노래로 우울하고 답답한 기운을 풀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장가(長歌)가 통곡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도 없고 마디도 없이 다만 천하고 속된 소리를 하는데 불과하니, 버려두어서 휴지나 되게 하든지 단지의 속덮개로나 쓰려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진주(珍珠)의 벗 윤상우(尹相佑)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 때문에 종이에 써달라고 하며 두고 볼 거리를 삼겠다고 하였다. 그 역시 품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미 심한 농담이라고 하여 덮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써주고 기록해둔다. 이는 소리와 기운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13]

김대락은 1912년 9월 27일부터 〈분통가〉를 작성하였는데, 총 400행이 되는 작품에서 망명지 만주의 활동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영웅장사와 의열사를 노래한 부분과 독립 전쟁과 광복을 노래한 후반부이다. 여기에서 김대락은 구한말 열사들의 살신성인 모습, 고려 이전 영웅·장사

13) 歌者 詩之流也 是以都兪明良之時 則爲賡載歌 南熏之詩 流離板蕩之世則爲黍離詩 採微之歌 盖所遇時然 而感發人性情之餘者 直亦同操而異貫是余今日所爲憤痛歌之所以作也 是以郊廟會同之詩 則和而莊 征婦怨恨之歌 則哀而傷 是皆衰世之意而賡載南熏之風 幾無所尋逐矣 余自事變之後糊口四方 或以詩而叙其憤惋之懷 或以歌而暢其堙鬱之氣 是所謂長歌甚於痛哭也 然無柯無節 止不過爲謳啞下俚之音置之爲休納覆瓿之資矣 偶爲珍珠友人尹相佑之所矚 因以紙請書要作姿覽之案 其亦所懷人也 旣不得爲極弄自護之計 遂書此而志夫聲氣所同之地云也爾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癸丑錄〉, 앞의 책, 425~426쪽)

의 당당했던 이력, 조선 시대 의사들이 남긴 교훈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분통가〉 기록 당시 김대락의 현재적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68세의 노유(老儒)로서 자신이 직접 전장에서 호령하며 싸울 수는 없지만 청년들에게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했던 영웅들이 있었음을 일깨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청년들을 통해 조국 광복이 달성되길 희망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만주망명가사의 창작은 김대락을 비롯한 안동 양반가 여성들의 가사 창작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김대락이 〈분통가〉를 지을 때 창작 의도를 부인과 여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을 정도로 당시 여성들의 가사 창작과 향유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가사 작품이 한 집안 구성원들의 가문의식이나 촌락 내 여성들 사이의 연대 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향유되었기 때문이다.

만주로 망명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한 집안이나 가문, 촌락 등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필사본으로 유통되어 왔다. 필사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한 가문을 중심으로 가전(家傳)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문을 중심으로 향유된 가사문학의 대다수는 경북 지역에서 수집되었다.[14] 그 중에서도 안동 지역[15]에서 가사

14) 필사본을 수집한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규방가사를 포함한 가사문학의 대다수가 경북 지역에서 수집되었으며, 아직도 경북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집안에 가사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규방가사 자료 조사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980년부터 경북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는 가사 필사본을 수집하여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출간된 책은 다음과 같다.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대일, 1984; 영천시 문화공보실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향토사연구소, 『우리 고장의 민요가사집』, 문경문화원, 1994; 봉화문

문학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반가가 많았던 안동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규방가사 필사본이 수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안동의 양반가는 서로 혼반으로 연결되어 가사 창작의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 창작이 활성화된 한 양반가에서 다른 양반가로 혼인해 가고, 이것이 거듭되는 혼반으로 엮어짐으로써[16] 안동 특유의 여성 문학적 전통이 된 것이다. 또한, 양반가 여성은 어려서는 가사를 통해 언문을 깨우치고, 성장하면서 언문 쓰기를 익혔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가사에 쓰인 관습적 표현구를 습득하여 한문구에 대한 교양도 늘려갔다. 그리고 일정 나이에 이르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경험과 서정을 표현하여 자신만의 가사 글쓰기를 해나갔다. 이러한 가사 창작의 전통은 양반가에서 대를 이어 전승되었으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문화가 되었다. 양반가 여성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10대에서부터 죽

화원, 『우리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봉화문화원, 1995;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울진문화원,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울진문화원, 2001.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5, 9쪽 인용)

15) 이정옥이 영남의 가사 자료를 수집하여 총 5권의 『영남내방가사』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제1-5권, 국학자료원, 2003)를 출간한 바 있다. 이정옥의 수집된 자료를 통해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영남 지역 안에서도 특히 안동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앞의 글, 12쪽 인용) 〈표 3〉 원적지를 기준으로 본 향유자 분포

안동	영덕	의성	청송	영양	문경	영천
29	21	1	8	6	1	1
포항	봉화	울진	경주	예천	성주	합계
9	2	2	4	3	2	89

16)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40쪽 참조.

을 때까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연들을 가사에 담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안동이 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으로 예안, 동으로 임하(내앞), 서북으로 금계, 서쪽으로 하회로 이어지는 타원형권이 규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본산지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예안은 퇴계 이황, 임하는 의성 김씨, 금계는 학봉 김성일, 하회는 서애 유성룡의 명문대가가 오랜 세월 세거해온 지역이다. 즉, 규방가사가 명문대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보다 활발하게 창작되고 향유[17]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던 사람들은 만주망명지에 가서도 본래 익숙했던 가사 장르를 그들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만주망명가사의 표출 정서

지금까지 만주망명가사 연구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작품론과 관련 연구들[18]을 참고하여 만주망명가사 7편의 작

17) 고순희,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앞의 글, 9~13쪽 참조.

18) 만주망명가사의 개별 작품에 대하여 작자의 망명시기 및 작품의 창작연대를 서술한 부분은 다음의 글을 참고로 하였다.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집, 국어국문학회, 2009, 153~157쪽;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1~35쪽 ;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수〉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9~113쪽;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제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136~142쪽; 고순희,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40~43쪽;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와 디아스포라」,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170~173쪽)

자, 망명시기, 작품의 창작연대 및 주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만주망명가사 작품 목록

작자	생존기간	망명시기	작품명	창작연대	주된 내용
김대락	1845~1914	1910년	〈분통가〉	1913년	독립 의지 고취
이호성	1891~1968	1912년	〈위모사〉	1912년	만주 망명 여정
김우락	1854~1933	1911년	〈조손별서〉	1913~1914년 무렵	혈육에 대한 그리움
			〈간운사〉	1914년	이별의 슬픔
평해 황씨가의 며느리	미 상	〃	〈원별가라〉	1916년 무렵	만주 망명과 생활
윤희순	1860~1935	〃	〈신세타령〉	1923년	망국민이 된 신세한탄
김우모	1874~1965	1940년	〈눈물 뿌린 이별가〉	1940년	환고향의 희구

〈분통가〉는 독립운동가 백하 김대락(1845~1914)의 작품으로 만주망명가사 중 유일하게 남성의 작품이다. 김대락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안동 천전리의 의성 김씨 문중을 이끌고 그해 12월 24일 서간도로 망명했는데, 사망하기 직전인 1913년에 〈분통가〉를 창작했다. 그는 1912년 9월부터 작품을 짓기 시작하여 1913년 6월에 작품을 완성해 『백하일기』 6월 4일자에 전문을 실었다. 〈분통가〉는 선비로서의 성장과 포부, 국망(國亡)의 현실과 망명 결심, 출발 전 준비와 하직 인사, 고향 출발과 육친 이별, 서간도 도착 과정, 망명지의 지세와 감회, 한말 인사들의 심판과 항일 열사 추모, 역사상 충신의사, 일본의 섬멸 의지, 그리고

청년 학도를 향한 독립 의지의 고취 등을 담고 있다.

〈위모사〉를 창작한 사람은 이호성(1891~1968)이다. 그는 이황의 후손으로 진성 이씨이며, 원촌마을에서 성장하여 김대락의 종질인 김문식(1892~1972)에게 시집을 와서 김대락의 옆집에서 살았다. 그는 김대락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1912년 봄에 안동을 출발해, 초여름에 서간도 통화현에 도착하자마자 〈위모사〉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로 아직 자녀가 없었다. 〈위모사〉의 전반부는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선의 역사와 일제 강점의 현실, 난세의 이주 사례, 서간도의 살기 좋음, 남녀평등의 시대 등을, 그리고 후반부는 고국에 대한 이별과 서간도 통화현까지의 도착 과정 등을 서술했다.

〈조손별서〉와 〈간운사〉의 작가는 김우락(1854~1933)으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1858~1932)의 부인이며 김대락의 여동생이다. 1911년 1월 25일에 안동의 임청각을 떠나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의 회인현에 도착했다. 이후 유하현에 머물다 만주 각지를 떠돌아 다녔다. 그는 환갑을 맞이한 해인 1914년 무렵을 전후해 두 가사를 창작했다. 〈조손별서〉는 안동 하회마을로 시집간 첫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가사이고, 〈간운사〉는 자신의 성장과 결혼에 대한 내용과 형제자매와의 이별, 만주에서의 생활, 형제자매에 대한 그리움, 재회의 희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별가라〉의 작가는 독립운동가 황만영(1875~1939) 문중의 며느리이다. 그는 1911년 봄에 남편과 함께 울진군 사동촌을 떠나 서간도에 도착하여 생활을 한 후, 1916년 무렵에 〈원별가라〉를 창작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였다. 〈원별가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성장과 결혼, 국망의 현실, 남편의 서간도 망명 제의, 고향 출발, 친정 어머니와의 긴 이별, 만주 도착 여정, 만주 생활, 조국 광복 기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세타령〉의 작가는 여성독립운동가 윤희순(1860~1935)으로, 독립운동가 유홍석(1841~1913)의 며느리이다. 그의 남편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윤희순은 1911년 4월 중국 요녕성 신빈현 고려구에 도착하고 1912년 초에는 환인현 팔리전자진 취리두 남산을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13년에 시아버지 유홍석, 1915년에는 남편 유제원이 세상을 떠나자 윤희순은 1915년에 아들 유돈상과 유교상을 데리고 환인현을 떠나 무순 포가둔으로 이주하여 조선독립단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1923년에 〈신세타령〉을 창작했다. 〈신세타령〉은 나라를 잃고 중국을 떠돌며 지내는 의병의 신세를 한탄하는 서정적 내용을 담았다.

1940년에 지어진 〈눈물 뿌린 이별가〉의 작가는 김우모(1874~1965)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권준희(1849~1936)의 며느리이며, 〈북천가(北遷歌)〉의 작가인 김진형(1801~1865)의 손녀이기도 하다. 그는 안동 금계마을에서 성장하여 권준희의 아들 권동만(1873~1951)과 혼인하여 안동 가일마을에서 살았다. 가일마을은 '안동의 모스크바'로 알려질 정도로 사회주의 운동의 본산지였는데, 작가의 둘째아들 권오헌(1905~1950)도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35년 무렵에 만주로 망명했다. 작가의 맏아들인 권오윤의 가족도 망명하자 김우모는 남편과 함께 1940년에 만주로 망명한다. 그는 만주로 들어가면서 〈눈물 뿌린 이별가〉를 창작했는데, 그 당시 67세 고령의 나이였다. 이후 유하현 삼원포와 하얼빈 등지에서 살았다. 〈눈물 뿌린 이별가〉는 조선 말기의 정치 현실과 일제 강점, 망국 백성의 간도 이주와 작가 부부의 만주 망명, 가일마을과의 이별, 가족과의 해후 기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7편의 만주망명가사가 창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사 장르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질 때문이다. 가사는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술회하고 민족적인 각성과 항일 투쟁의 의지

를 고취하는 데 가장 긴요한 수단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만주망명가사에 나타난 정서 표출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국 상실의 슬픔

만주망명가사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생활형 이주가 아닌 정치적 망명을 전제로 만주 망명지에서 혹은 만주로 가는 과정에서 지은 가사 작품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고국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 내지 이별의 정한을 술회하고 국권상실의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식을 드러낸다. 김대락은 고향을 떠날 때의 심회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九十當年 猶父兄을 열쥴걸로 하직ᄒᆞ고
白首之年 왜낫동싱 生離死別 썻쳐노코
梁山令公 處義할졔 샨鬼神을 치하하고
李司諫의 붐을바다 우슘으로 됴샹하고
李侍郎과 李上舍난 열걸句로 薤歌하고
至情切戚 다더디고 越獄逃亡 하덧하니
淚水가 압흘막가 白日이 無光이라
洞口박글 써나올졔 며리둘너 다시보니
山川이 어두은덧 草木이 슬피한덧
아무려도 ᄉᆡᆼ각ᄒᆞ니 가난거시 良策이라

– 김대락, 〈분통가〉 19)

김대락은 늙은 노부와 형을 몇 줄의 글로 하직하고 머리가 하얗게 샌 유일한 동생과 “생이사별(生離死別)”을 하였다. 정을 떼고 친척들과 단

19)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29쪽.

절하고 감옥을 뛰쳐나가듯이 망명을 하려하였지만 눈물이 앞을 막아 대낮에 빛이 보이지 않았다고 술회하였다. 머리를 돌려 산천초목을 다시 돌아보니 비록 가슴속에는 또 다시 슬픔이 밀려왔지만 가까스로 참아내면서 다시금 생각하기를 그래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난다[20]고 하였다. 김대락이 술회한 이별 장면에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표출되고 있다.

> 간다간다 나는간다 그어데로 가난길고
> 기산영수 별건곤에 소부허유 찾아가나
> 수양산 깊은곳에 채미하로 가난길가
> 자손창성 기대하여 명당찾아 가난길가
> 부모분묘 다버리고 속절없이 가는구나
> 동기숙질 다버리고 눈물겨워 어이갈꼬
>
> –김우모, 〈눈물 뿌린 이별가〉[21]

위의 내용을 보면, 작가가 망명 당시에 자신이 이미 연로하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절망감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고 있다. 또한 작가는 속절없는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한탄하면서, 일제 시대라는 현실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듯이 서러움을 토로한다. 그녀가 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비록 연로한 몸이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상봉하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별의 장면을 다룸에 있어서 작가는 상여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작가가 겪는 슬픔의 원인이 나라를 잃은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는 만주 망명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다. 즉, 작가가 떠난 망명

20) 방미선, 「만주 망명 부녀가사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4쪽.
21)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137쪽.

길이 저승길이 되어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재회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절망감에서[22] 슬픔이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슬푸고도 슬푸도ᄃᆞ 이내신ᄉᆡ 슬푸도ᄃᆞ
이국말리 이내신ᄉᆡ 슬푸고도 슬푸도ᄃᆞ
보이는눈 쇠경이요 들리는귀 ᄆᆡᆨ켝꾸ᄂᆞ
말하는입 벙어리요 슬푸고도 슬플도ᄃᆞ
이ᄂᆡ신ᄉᆡ 슬푸도ᄃᆞ 보이나니 ᄀᆞᆺ마기ᄅᆞ

－윤희순, 〈신세타령〉[23]

윤희순이 지은 〈신세타령〉은 그가 직접 조선독립단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할 때 창작한 작품이다.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윤희순은 이국 만리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동시에 자신 못지않게 의병들의 신세가 불쌍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일제가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 암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만주에서 겪는 혹한과 기아,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가는 곳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래서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는 비장하고 비탄적이다. 그 이유는 슬픔을 이르는 말로 “슬프다”, “서럽다”, “불쌍하다”, “애달프다” 등의 어휘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2. 일제를 향한 분노

김대락의 〈분통가〉는 일제에게 나라가 함몰되고 주권을 침탈당한 비분강개한 정서를 담아내는 한편 역사 속에서 외적을 물리친 민족 영웅

22) 방미선, 앞의 글, 26쪽 참조.
23)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128쪽.

들을 되새기면서 항일의 투지를 격앙된 어조로 담아내고 있다. 그는 〈분통가〉에서 만주로 망명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밝힘에 있어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침략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분노를 토로하였다.

毒蛇갓튼 그모양을 아츰제역 ᄃᆡ탄말가
鬼蜮갓튼 그人物를 이웃갓치 샤단말가
길싹가라 길짐져라 雷霆갓튼 號令소리
金玉갓튼 우리民族 져의奴隸 되단말가
龍鳳갓튼 堂堂士夫 져게壓制 밧단말가
哀殘하고 憤痛하다 그거둥을 엇디보리
속졀업시 싱각ᄒᆞ니 檀公上策 一走字라
南走越에 北走胡에 四面八方 살펴보니
그리히도 난은곳디 長白山下 西間島라
檀祖當年 開國處오 句麗太祖 創業地라
決定하고 斷定하야 勇往直前 하쟈할제

– 김대락, 〈분통가〉 24)

김대락은 독사같은 일본군의 몰골을 아침저녁으로 어찌 보고 지내며 귀역(귀신과 불여우)같은 놈들을 어찌 이웃처럼 함께 살아가겠는가라고 통탄하였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노예가 되어 압제당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서간도로 망명할 것을 결심한다.25) 〈분통가〉는 내용상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작품에 나타난 정서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4)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20쪽.
25) 방미선, 앞의 글, 59쪽.

〈표〉 〈분통가〉의 주제 및 정서 표출 양상[26]

단 락		주 제	정서
1	1구~60구	망명하기까지 조선의 역사	비분강개
2	61구~188구	망명을 결심하고 고향 이별, 망명 여정, 만주 도착	이별의 비통함 분노
3	189구~288구	영웅, 위인, 열사 찬송	격정에 차넘침
4	289구~400구	독립전쟁에 대한 투지와 광복을 쟁취하려는 신념	격앙

위의 표를 토대로 〈분통가〉에서 체현된 그의 정서는 국권피탈이라는 현실 앞에서 슬프고 비통한 감정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격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 1단락에서는 "우습고도 분통ᄒᆞ다 무국지민(無國之民) 되단 말가 우습고도 분통(憤痛)하다 리친거국(離親去國) ᄒᆞ단말가"라고 하면서 일제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백성이 된 것을 어이없고 분통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망명하기까지의 조선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비분강개한 정서를 표출하였다.

제 2단락에서는 망명의 불가피함을 읊으면서 망명을 떠날 때의 이별 회포를 술회한 후, 서울, 신의주, 압록강, 통화현, 유하현에 정착한 사연을 길게 적었다.

제 3단락에서는 구한말에 활약한 항일 열사들과 고려 시대 이전의 영웅 장사들 그리고 조선 시대 의사들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민족영웅들이다. 이로써 김대락은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일깨우고 있다.

제 4단락에서는 중국 고사를 떠올리면서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26) 방미선, 앞의 글, 63쪽 참조.

광복을 이루리라는 항일투지와 굳은 신념을 표출하였다.[27]

이를 통해 〈분통가〉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침탈당함으로써 유발되는 비분강개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외적을 물리친 민족 영웅들을 되새기면서 항일의 투지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묘사직 외인ᄋᆡ게 사양하고
강ᄉᆞᆫ은 의구ᄒᆞᄃᆡ 풍경은 글너시니
불ᄉᆞᆼ할ᄉᆞ 우리동포 사라날길 젼혀업소
가ᄇᆡ안예 고기갓고 푸됴쌴예 희ᄉᆡᆼ긋치
살시리고 ᄇᆡ골파도 세금독촉 성화갓고
아니히도 증녁가고 다ᄒᆞᄌᆞ니 굴머쥭고
학졍이 니러ᄒᆞ니 살ᄉᆞ람 뉘가잇소
집집ᄋᆡ ○○계견 져이라도 쥬제마난
져눈ᄋᆡ 우리ᄉᆞ람 즘ᄉᆡᆼ만 못ᄒᆞ여셔
겨됴ᄎᆞ 아니쥬고 부리기만 엄을ᄂᆡ이
수비ᄃᆡ 한소ᄅᆡ예 샹혼실ᄇᆡᆨ 놀나쥭고
이젼부터 난ᄉᆡ당히 피란가ᄂᆞᆫ 사람들이
광풍ᄋᆡ 낙엽갓치 ᄃᆡ히의 부평갓치
조흔터 ᄎᆞᄌᆞ가셔 ᄀᆡ긔ᄒᆞ고 사난사람
모도남ᄋᆡ ᄌᆞ식으로 만ᄃᆡ시조 되어시이
역역거수 ᄒᆞ여바도 안그르니 뉘가잇소
거록할ᄉᆞ 우리비조 헌원황졔 ᄌᆞ손이라
듕화본부 사시다가 긔ᄌᆞ를 ᄯᅡ라나와
ᄇᆡᆨ두산이 쥬봉ᄃᆡ고 한강으로 즁심ᄒᆞ여
금옥갓한 이강토ᄋᆡ 지지업업 거실ᄒᆞ니
근원을 소구ᄒᆞ면 우리조샹 그안이요

—이호성, 〈위모사〉[28]

27) 방미선, 앞의 글, 59쪽 참조.
28)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48~49쪽.

〈위모사〉에서는 한일병합 직후 식민지 조국의 상황을 일제의 학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우리 동포가 물고기나 푸주간의 짐승과 같다,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는 일제의 세금 독촉에 징역을 살거나 굶어죽는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는 겨라도 주지만 왜놈은 조선인에게 겨조차 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한다, 수비대의 소리에 우리 동포는 놀라 죽어 나간다고 했다. 고상한 한문어투를 버리고 순우리말 어투를 사용하여[29] 일제에 대한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건너 왜놈들이 그틈타서 건너오네
오역과 칠적들과 합세하여 나라뺏어
정치를 한다는게 백성이 도탄이라
서럽도다 서럽도다 망국백성 서럽도다
아무리 살려해도 살수가 바이없네
충군애국 다팔아도 먹을길 바이없고
효우를 다팔아도 살아날길 바이없고
서간도나 북간도로 가는사람 한량없네

－김우모, 〈눈물 뿌린 이별가〉[30]

〈눈물 뿌린 이별가〉에서는 물을 건너 왜놈들이 건너와서 오역·칠적과 합세하여 이 나라를 빼앗았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그동안 지켜왔던 충군애국이니 효우니 하는 것을 다 팔아도 살아날 수가 없다. 살 수 없는 조선인 중에서 간도로 이주해 나가는 이가 수도 없이 많다[31]고 했다.

29) 방미선, 앞의 글, 20쪽.
30)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139쪽.
31) 방미선, 위의 글, 33쪽.

3. 혈육에 대한 그리움

만주망명가사의 일차적 창작 동기는 대부분 고국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는 고국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이다. 작가가 이별하거나 그리워하는 주요 대상은 〈위모사〉와 〈원별가라〉에서는 친정부모, 〈간운사〉에서는 형제자매, 〈조손별서〉에서는 손녀, 〈눈물 뿌린 이별가〉에서는 가일마을의 여성들이다. 그리고 작가들은 고국의 산하나 고향에 대한 서정도 아울러 표출했다.[32]

그립도다 우리부모 보고져라 우리동기친쳑
느린다시 바려두고 무엇하려 예을왓나
원창취이 ᄉᆞ고무친쳑이요 묘창히지일속이라
ᄉᆞ향하는 이ᄂᆡ심회 비길곳 전혀업다
—평해 황씨 며느리, 〈원별가라〉[33]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 작품은 만주에서 지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에서 고국강산을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와 동기, 친척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심정[34]이 잘 나타난다.

갑오년후 십여연을 비ᄉᆞ비야 은거ᄒᆞ니
연비가 업ᄂᆞᆫ곳의 셔신조ᄎᆞ 희소터니
경술연 츄칠월의 세ᄉᆞ가 망충ᄒᆞ긔
즁국의 고심혈셩 건국의ᄉᆞ단 졍ᄒᆞ니
무식ᄒᆞᆫ 여ᄌᆞ소견 츙의열심 잇ᄀᆡ스랴

32)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 앞의 글, 187쪽 참조.
33)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56쪽.
34) 방미선, 앞의 글, 10쪽 참조.

마음의ᄉᆞ 불합ᄒᆞᄂᆞ 삼종지의 쎳쎳ᄒᆞ니
아니가고 엇지ᄒᆞ리 살림전퇵 다바리고
금슈갓ᄒᆞᆫ 우리조국 동은하량 호가ᄉᆞ를
헌신갓치 던져주고 속졀업시 써날시예
셔신이나 붓쳐볼걸 초목심장 아니어든
쳘윤지졍 업슬손야 마음이ᄉᆞ 잇것마ᄂᆞᆫ
사셰부득 엇지ᄒᆞ노
구십당연 뉴부형긔 다시망ᄇᆡ 못ᄒᆞ고셔
ᄇᆡᆨ슈지연 삼거지ᄂᆞᆫ 속졀업ᄉᆞᆫ 싱이사별
오미불망 이힝형뎨 긔회업ᄉᆞᆫ 영졀이나
ᄒᆞᆫ이로다 ᄒᆞᆫ이로다 ᄇᆡᆨ니안쪽 머다ᄒᆞ고
다시못본 ᄒᆞᆫ이로다

– 김우락, 〈간운사〉 35)

〈간운사〉는 만주에서 생활하는 노년의 작가가 고국의 형제자매, 특히 여형제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절실한 심정으로 희구한 가사이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국이기에 작가의 고뇌는 더욱 배가 된다. 그리하여 만날 수 없는 한탄의 정조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간운사〉의 전반부는 형제자매와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및 만주망명 사실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남편 이상룡의 의병활동으로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자 서신이 끊기게 되고, 결국 남편은 건국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만주로 망명을 결심한다. 작가는 만주로 망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을 따라서 급하게 만주로 떠나게 된다.

〈간운사〉에서 추억에 대한 술회 부분은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35)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85쪽.

장편의 편폭을 들여 어린 시절과 행복했던 나날들을 회상하고 있다. 칠남매가 부모슬하에서 자라던 일, 형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70여 칸의 가택의 주인이 되어 벌떼같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호강하게 살았던 일, 돈독한 우애를 쌓았던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 등 옛 이야기 같은 추억들을 작품 속에 굽이굽이 풀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매 기억을 더듬어 보고 나서는 "어와 우습도다"하며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공허함을 토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죽어서라도 꼭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꼭 일제를 몰아내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들과 상봉하리라는 굳은 신념[36]을 밝혔다.

너히를 생각ᄒᆞᆫ이 비회가 상반일다
쳥할마암 간절ᄒᆞ나 흥망이 달인일을
권극이 어려운이 ᄂᆡ아비 회긔할적
이ᄉᆞ을 보아가며 갓치오라 당부ᄒᆞ고
은현즁 밋든거시 막막심ᄉᆞ 갈발업다
이곳ᄋᆡ와 잇던사람 마음을 정도못ᄒᆡ
귀국ᄒᆞ이 무슈ᄒᆞ니 아모리 ᄉᆡ각ᄒᆡ도
속절업난 이별이라 슬푸 이아ᄒᆡ야

– 김우락, 〈조손별서〉[37]

위의 내용은 작가가 만주로 망명하게 된 경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남편인 이상룡이 마침내 만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게 되면서 작가 김우락도 함께 동행해야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시집을 보낸 딸과 손녀를 버리고 가야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이다. 김우락 일가는 70여 칸의 전래 전답을 버려두고 군자금을 마련하여 만주로 망명

36) 방미선, 앞의 글, 28쪽.
37)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앞의 책, 102~103쪽.

하였다. 통곡하며 고향의 친척들과 이별하고 먼 길을 나섰지만 마지막으로 손녀딸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한스럽다고 술회하고 있다.

〈조손별서〉는 전반적으로 손녀딸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를 이루면서 슬픔과 한탄의 정조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 슬픔의 이면에는 일제를 몰아내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들과 상봉하고픈 간절함이 묻어있다.[38]

이로써 만주망명가사의 총체적인 흐름은 이별, 그리움, 분노, 슬픔, 한탄 등 정서를 표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작가들은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통을 달래기도 하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며,[39]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은 현실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Ⅳ. 나오며

만주망명가사는 작가들이 만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 부모형제와 이별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라를 잃은 현실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어서 슬픔과 분통의 정서를 공동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망명가사의 작가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글쓰기 방식인 가사체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기록하면서 망명 체험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일제의 통치 하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 일본군의 살벌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망국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자기

38) 방미선, 앞의 글, 30~31쪽 참조.
39) 방미선, 위의 글, 62쪽 참조.

신세를 통탄하면서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구슬픈 심회를 술회하였다. 그래서 작가들은 자신과 대등한 처지에 처해있는 독자들을 상정하여 가사문학 장르에 자신의 진솔한 정서를 담아냈던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당대를 살아갔던 작가들이 그 당시에 창작한 문학이므로, 만주망명가사는 가사문학이면서, 실기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주망명가사는 현대 독자들에게 읽혀짐으로써 실기문학의 감동 또한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주망명가사의 가장 뚜렷한 미학적 특질로 현실성(리얼리티)을 들 수 있다. 만주망명가사에서 현실성은 망명서사의 세계를 통해 확보된다. 만주망명과 독립 운동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매우 특수한 부분이었다. 이 특수한 역사의 주체들은 무수히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 주체들의 희생과 고통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책에서나 배웠던 현대의 독자들은 만주망명가사를 읽으며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즉, 현대의 독자는 만주망명가사에서 펼쳐진 작가 개인의 사연을 접하고 그 현실성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주망명가사는 가사라는 장르에 관습적인 서술 양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만주로의 근대적 여행 경험, 만주에서의 근대 생활, 근대적 사고 등이 수용되어 있다. 이로써 만주망명가사에는 근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경험, 즉 일제 강점과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충격을 전통 장르인 가사를 통해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 전통 장르의 지속이 만주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그 문학적 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고순희,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자료』, 박문사, 2014.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_____,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_____,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2. 논문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집, 국어국문학회, 2009.
_____,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_____, 「만주망명 가사 〈간운수〉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_____,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제155집, 국어국문학회, 2010.
_____,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 〈위모사〉, 〈신식트령〉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_____,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_____, 「만주망명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적 특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_____,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_____,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미학적 특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

연구』 제44집, 우리어문학회, 2012.
_____,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지역문화콘텐츠 제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5.
김신중, 「가사의 형태적 변화와 현대적 수용」,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김학성, 「가사 양식의 전통 유형과 계승방향」,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방미선, 「만주 망명 부녀가사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신 송, 「일제강점기 만주망명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안영길, 「20세기초 만주 문학의 성격」, 『우리어문연구』 제47집, 우리어문학회, 2013.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제4판, 지식산업사, 2013.

이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만주망명가사의 정서 표출 양상

신 송

일제강점기(1910~1945)에 만주에서 독립 투쟁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던 가사문학을 ‘만주망명가사’ 또는 ‘만주망명지 가사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망명한 사람들이 지은 7편의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정서 표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내에서의 항일 투쟁은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일부 운동가들은 국외에서 독립 투쟁을 도모하였다. 1911년 11월, 경의선 철로가 중국의 안동(安東)까지 연결되면서 만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 일대는 한민족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항일 투쟁지로 만주를 선택하였고 이때 만주를 중심으로 한 망명지문학이 형성되었다.

만주망명가사의 작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것을 가사로 표현했다. 이들이 쓴 가사에는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심정, 고국에 남겨진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 나라를 빼앗긴 울분 등이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독립 투쟁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던 가사 작품을 ‘만주망명가사’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만주망명가사를 망명지문학의 하위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살펴 본 만주망명가사는 전통 시가 양식인 가사에 만주 망명 경험이나, 만주에서 겪게 된 생활 및 그에 따른 근대적 체험과 사고 등을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만주망명가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관통하면서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 투쟁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사람들에 의해 제작,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독립 투쟁, 만주망명가사, 가사문학, 정서 표출

<Abstract>

Study on the Emotional Expression of Gasa at Manchuria Exi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Shin, Song

Gasa literature that was written to describe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at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can be defined as 'Gasa at Manchuria exile' or 'Gasa literature of the place of exi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argeting seven Gasa works written by those exiled to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o examine the emotional expression appearing in the works.

Korea was reduced to a colony of Japan by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 1910. Anti-Japanese struggle of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became difficult in Korean soil due to all-out suppression of imperial Japan and some of the fighters tried to launch fights for independence in foreign lands. From November 1911, with the Gyeongyi Railway connected up to Andong (安東), China, Manchuria which came to be included in the areas of activities for Koreans easily accessible. Thus, intellectuals chose Manchuria as a new place of anti-Japanese fights to avoid suppression of Japanese imperial forces in Korean soil,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exile literature centering on Manchuria.

Writers of Gasa in Manchurian exile came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s in their lives by joining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xpressed them with Gasa. The Gasa works show the exiled people's sadness that they had to leave their homeland, longing for their parents and siblings, and

anger that they lost their own country.

Thus, this study defined Gasa works created in the background of independence struggle in Manchuri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s ‘Gasa in Manchurian Exile’ and intended to lay the ground to discuss ‘Gasa in Manchurian Exile’ by classifying it as sub-categories of literature in exile.

Gasa at Manchuria exile examined in this study has the form of traditional poetry containing the experience and life at Manchuria and related modern experience and thought. Gasa at Manchuria exile has the value of literature history in that it shows th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modern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was described by those exiled to Manchuria for struggle for independence.

key words: the Japanese Occupation, struggle for independence, Gasa at Manchuria exile, Gasa literature, emotional expression